

〈子平眞詮〉 論食神

食神本屬泄氣 以其能生正財 所以喜之

故食神生財 美格也 財要有根 不必偏正疊出 如身強食旺而財透 大貴之格

若丁未 癸卯 癸亥 癸丑 梁丞相之命是也

己未 壬申 戊子 庚申 謝閣老之命是也

食神은 원래 泄氣하는 작용을 한다.

正財를 生하는 효용이 있기에 食神을 기쁘게 여긴다.

그러므로 食神生財가 되면 좋은 格局이다.

재성이 뿌리가 있으면 정재와 편재가 중첩해서 天干에 투출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身強한 사주에 食神이 旺하고 재성이 투출하면 大貴하는 格局이다.

다음의 양승상과 사각로의 사주가 그 좋은 예이다.

여름의 나무가 財를 쓰는 경우는 불은 뜨겁고 흙은 메말랐으니(火炎土燥)

武班에서 貴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갑인일 黃都督의 사주이다.

癸 癸 癸 丁

丑 亥 卯 未

- 梁丞相의 사주

庚 戊 壬 己

申 子 申 未

- 謝閣老의 사주

丙 甲 己 己

寅 寅 巳 未

4강 격국론III

若不用財而就煞印 最為威權顯赫

如辛卯 辛卯 癸酉 己未 常國公命是也

若無印綬而單露偏官 只要無財 亦為貴格 如戊戌 壬戌 丙子 戊戌 胡會元命是也

만약 식신격이 財星을 쓰지 않고 칠살과 인성을 쓴다면
가장 권위가 혁혁하게 된다. 예를 들면 常國公의 사주이다.

만약 인수가 없이 단독으로 칠살만 투출했다면
재성이 없어야 비로소 貴格이 된다.

예를 들면 胡會元의 사주이다.

己 癸 辛 辛
未 酉 卯 卯

戊 丙 壬 戊
戌 子 戌 戌

4강 격국론III

若金水食神而用煞 貴而且秀 如丁亥 壬子 辛巳 丁酉 舒尚書命是也
至於食神忌印 夏火太炎而木焦 透印不礙 如丙午 癸巳 甲子 丙寅 錢參政命是也
食神忌官 金水不忌 即金水傷官可見官之謂

만약 金水食神格이 칠살을 쓴다면 貴하면서도 아울러 총명하다.

예를 들면 舒尚書의 사주이다.

식신격에 인수가 忌神이라고 하지만

여름의 火는 너무 뜨거우니 인수가 투출해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錢參政의 사주이다.

식신격에 官을 꺼리지만 金水상관격은 官을 보는 것이 좋다.

丁 辛 壬 丁
酉 巳 子 亥

丙 甲 癸 丙
寅 子 巳 午

至若單用食神 作食神有氣 有財運則富 無財運則貧
更有印來奪食 透財以解 亦有富貴 須就其全局之勢而斷之
至於食神而官煞競出 亦可成局 但不甚貴耳

만약 단독으로 食神을 쓰는 경우에는 식신이 有氣하고
재성운으로 흐른다면 富하게 되고 財의 運으로 흐르지 못하면 가난하다.
인수가 奪食할 때 다시 재성이 투출하여 이를 해소하면 이 역시 富貴한다.
그러나 반드시 全局의 氣勢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심지어 식신격인데 관살이 모두 투출한 경우에도 역시 局을 이루는 수도 있지만
大貴하지는 못한다.

更有食神合煞存財 最為貴格 至若食神透煞

本忌見財 而財先煞後 食以間之 而財不能黨煞 亦可就貴

如劉提台命 癸酉 辛酉 己卯 乙亥是也 其餘變化 不能盡述 類而推之可也

식신격이 칠살을 습去하고 재성을 남기는 것이 가장 뛰어난 貴格이다.

식신격에 칠살이 투출했다면 원래 재성이 나타나는 것을 꺼린다.

그러나 재성이 앞에 있고 칠살이 뒤에 있는데

그 중간에 식신이 있다면 財는 칠살을 생조하지 못하므로 역시 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劉提台的 사주이다.

기타의 여러가지 變化 역시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 類推하기 바란다.

乙 己 辛 癸
亥 卯 酉 酉

〈子平眞詮〉 論食神取運

食神取運 即以食神所成之局 分而配之

食神生財 財重食輕 則行財食 財食重則喜幫身 官煞之方 俱為不美
食用煞印 運喜印旺 切忌財鄉 身旺 食傷亦為福運 行官行煞 亦為吉也

食神格의 運은 식신격이 배합되어 이루고 있는 局을 구분하여 본다.

食神生財의 局에서 재성은 重하고 식신이 輕하다면 재성운과 식신운으로 가야 좋고
재성과 식상이 重하다면 일주를 돕는 運으로 가야 한다. 官殺運은 좋지 않다.

食神格에 칠살과 인성을 쓰는 사주는 인성이 왕旺한 運을 좋아하고
재성운은 절대 꺼린다. 身旺하면 식상운 역시 福이 되고 官殺運 역시 吉하다.

食傷帶煞 喜行印綬 身旺 食傷亦為美運 財則最忌

若食太重而煞輕 印運最利 逢財反吉矣

食神太旺而帶印 運最利財 食傷亦吉 印則最忌 官煞皆不吉也

食神格이 칠살을 가지고 있는 경우(食神帶殺)의 사주는

인수운이 좋고 身旺運과 食傷運 역시 좋다. 재성운은 가장 꺼린다.

만약 식신이 너무 많고 칠살이 경미하다면 인성운이 가장 좋고 재성운도 도리어吉하다.

食神格에 식신이 太旺하고 인성이 있는 경우는 財運이 가장 좋고 食상운도 역시吉하다.

인성운이 가장 불길하고 관살운도 불길하다.

(서락오 평주 예문) 금수식상격(관성)과 목화식상격(인성)

丁 辛 壬 丁
酉 巳 子 亥

乙丙丁戊己庚辛
巳午未申酉戌亥

丙 甲 己 己
寅 寅 巳 未

癸甲乙丙全戊
亥子丑寅卯辰

〈子平眞詮〉 論偏官

煞以攻身 似非美物 百大貴之格 多存七煞 蓋控制得宜 煞為我用
如大英雄大豪傑 似難駕馭 而處之有方 則驚天動地之功 忽焉而就
此王侯將相所以多存七煞也

七殺(偏官)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 좋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大貴한 사람의 사주를 보면 七殺格이 많다.

칠살도 잘 통제하기만 하면 내가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大英雄 大豪傑이 다스리기(駕馭) 어려워 보이지만

이를 잘 다스리면 驚天動地의 공로를 세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王侯將相의 사주 가운데는 偏官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七煞之格局亦不一 煞用食制者 上也

煞旺食強而身健 極為貴格 如乙亥 乙酉 乙卯 丁丑 極等之貴也

七殺格 역시 한 가지가 아니다.

칠살격(偏官格) 가운데 식신의 諸殺이 있는 사주를 上格으로 친다.

칠살도 旺하고 식신도 강한테 일간이 身強하면 극히 貴하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주인데 극도로 貴하게 되었다.

丁 乙 乙 乙
丑 卯 酉 亥

4강 격국론III

煞用食制 不要露財透印 以財能轉食生煞 而印能去食護煞也
然而財先食後 財生煞而食以制之 或印先食後 食太旺而印製 則格成大貴
如脫脫丞相命 壬辰 甲辰 丙戌 戊戌 辰中暗煞 壬以透之 戊坐四支
食太重而透甲印 以損太過 豈非貴格. 若煞強食洩而印露 則破局矣

七殺格에 식신의 制殺을 쓰는 경우에는 재성과 인수가 투출하지 않아야 한다.
재성은 식상을 洩氣하여 칠살을 돕고 인수는 식신을 제거하여 칠살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성이 앞에 자리하고 식신이 뒤에 있으면 재성이 생한 칠살을 식신이 다시 剋制하니
무방하고 인수가 앞에 있고 식신이 뒤에 있는 것도 식신이 太旺한 경우에는 大貴한다.
예를 들면 脫丞相의 사주이다. 辰 중에 칠살 癸水가 있고 천간에 칠살 壬水가 투출했다.
戊土가 지지 네 곳에 뿌리박고 있으니 식신이 太旺하다.
그런데 인수 甲木으로 太過한 식신을 제거하니 어찌 貴格이 아니겠는가?
만약 칠살이 강하고 식신이 경미한데 인수가 천간에 드러나면 破局이 된다.

戊 丙 甲 壬
戌 戌 辰 辰

4강 격국론III

有七煞用印者 印能護煞 本非所宜 而印有情 便為貴格
如何參政命 丙寅 戊戌 壬戌 辛丑 戊與辛同通月令 是煞印有情也

七殺格에 인수가 용신인 경우가 있다. 인수는 능히 칠살을 보호하니 마땅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殺印相生하여 有情하다면 貴格이 된다. 예를 들면 何參政의 사주이다.
칠살 戊와 인성 辛이 月令에 함께 통근하고 있으니 칠살과 인수가 有情하다.

(서락오評註) 官殺은 모두 財와 인수로 보좌한다. 그러나 財와 印은 병용하지 못한다.

하참정의 사주는 財는 년간에 있고 財生殺 殺生印 印生身하니
財가 인수를 破하지 않고 위치와 배합이 적당하다. 그러므로 貴하게 되었다.

만약 월주와 시주의 위치가 바뀌었다면
財가 인수를 破하고 칠살이 일주를 剋하여 貧賤한 格局이 되었을 것이다.

辛 壬 戊 丙
丑 戌 戌 寅

亦有煞重身輕 用食則身不能當 不若轉而就印 雖不通根月令 亦為無情而有情
格亦許貴 但不大耳

만약 칠살이重하고 身弱하다면 약한 일주가 식신을 감당하지 못한다.

만약 식신을 버리고 인수를 用神으로 취한다면

비록 월령에 通根하지 못했다고 해도 역시 無情한 것이 有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역시 貴하게 되는데 貴함이 작을 뿐이다.

4강 격국론III

有煞而用財者 財以黨煞 本非所喜 而或食被制 不能伏煞 而財以去印存食 便為貴格

如周丞相命 戊戌 甲子 丁未 庚戌 戌被甲制 不能伏煞

時透庚財 即以清食者生不足之煞 生煞即以制煞 兩得其用 尤為大貴

七殺格에 財星을 쓰는 경우가 있다. 재성은 칠살을 생하니 원래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식신이 인수에 의해 剋을 당하고 있어서 식신이 칠살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財를 써서 인수를 제거하고 식신을 살려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貴格이 된다. 예를 들면 周丞相의 사주이다.

상관 戊土가 인수 甲木에 의해 剋을 당하여 칠살을 制伏할 수 없다.

그런데 時의 庚金 재성이 투출하여 인수를 제거하니

식신이 맑아지고 재성이 부족한 칠살을 생하여

生殺이 곧 制殺로 이어져서 두 가지 작용을 모두 하니 大貴한 것이다.

庚 丁 甲 戌
戌 未 子 戌

又有身重煞輕 煞又化印 用神不清 而借財以清格 亦為貴格
如甲申 乙亥 丙戌 庚寅 劉運使命 是也

또 身強하고 칠살은 약한데 인수가 있어서
칠살의 기운을 洩氣하여 用神이 清하지 못할 때는
재성을 빌려서 格을 맑게 하면 이 역시 貴格이 된다.
예를 들면 劉運使의 사주이다.

庚 丙 乙 甲
寅 戌 亥 申

更有雜氣七煞 干頭不透財以清用 亦可取貴
有煞無食制而用印當者 如戊辰 甲寅 戊寅 戊午 趙員外命是也

雜氣七殺格은 천간에 재성이 투출하지 않으면
用神이 많으니 貴를 취할 수 있다.
七殺格에 식신이 없으면 인수를 쓰는 것이 당연하다.
예를 들면 趙員外의 사주이다.

戊 戊 甲 戊
午 寅 寅 辰

〈子平眞詮〉 論偏官取運

偏官取運 即以偏官所成之局分而配之

煞用食制 煞重食輕則助食 煞輕食重則助煞 煞食均而日主根輕則助身

忌正官之混雜 畏印綬之奪食 煞用印綬 不利財鄉 傷官為美 印綬身旺 俱為福地

偏官格의 運을 보는 법은 편관(七殺)격이 이루고 있는 局을 잘 분별한 후에 論한다.

食神을 써서 制殺하는 局에서는 殺重食輕하다면 食神을 돕는 運이 와야 하고

殺輕食重하다면 七살을 돕는 運으로 가야 좋다.

七살과 食神이 均衡을 이루고 있는데 일주의 뿌리가 가볍다면 일주를 돕는 運으로 가야 하며

七살을 혼잡하게 하는 정관운과 奪食하는 인수운을 두려워한다.

偏官(七殺)格에 인수를 쓰는 사주는 財運에 불리하고

상관운에 좋고 인수운과 身旺運에는 福이 된다.

煞用傷官 行運與食同(食傷同類)

七煞用財 其以財而去印存食者 不利劫財 傷食皆吉 喜財怕印 透煞亦順

칠살격에 상관을 쓰는 사주는 식신을 쓰는 사주와 마찬가지로 運을 보라.

칠살격에 財를 쓰는 사주는 그 財가 인수를 제거하고 식신을 보존하는 것이라면

비겁운이 불리하고 식상운이吉하며 재성운은 좋고 인수운은 두렵다.

칠살이 대운 천간에 투출해 있어도 역시 순조롭다.

其以財而助煞不及者 財已足 則喜食印與幫身 財未足則喜財旺而露煞

煞帶正官 不論去官留煞 去煞留官 身輕則喜助身

食輕則喜助食 莫去取清之物 無傷制煞之神

財星으로 칠살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경우에

재성이 이미 충분하다면 식신운과 인수운과 일주를 돕는 運이 좋고

재성이 부족하다면 재성이 旺해지는 運과 칠살이 투출되는 운을 반긴다.

칠살격에 정관이 있는 사주는 去官留殺이든 去殺留官이든 막론하고

신약하면 일주를 돕는 運이 와야 하고 식신이 가벼우면 식신을 돕는 運으로 가야 하는데

사주를 맑게 하는 것을 손상하지 않아야 하고 制殺하는 것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煞無食制而用刃當煞 煞輕刃重則喜助煞

刃輕煞重 則宜制伏 無食可奪 印運何傷 七煞既純 雜官不利

칠살격에서 식신의 制殺이 없이 陽刃으로 칠살을 감당할 때는

칠살이 弱하고 양인이 重하다면 칠살을 돕는 運이 좋고

양인이 가볍고 칠살이 旺하다면 마땅히 칠살을 制伏하는 운으로 가야 하는데

원국에 식신이 없다면 인수운이 좋다.

칠살이 이미 순수하다면 정관이 섞이는 것이 불리하다.

〈子平眞詮〉 論傷官

傷官雖非吉神 實為秀氣 故文人學士 多於傷官格內得之
而夏木見水 冬金見火 則又為秀之尤秀者也 其中格局比他格多 變化尤多
在查其氣候 量其強弱 審其喜忌 觀其純雜 微之又微 不可執也

傷官은 비록 吉神은 아니지만 秀氣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文人學士의 사주에 상관격이 많다.

여름의 木이 水를 만나고 겨울의 金이 火를 보면 더욱 秀氣가 빼어나다.

格局 가운데 상관격이 가장 종류가 많고 변화 또한 가장 많다.

氣候를 보아야 하고 強弱을 헤아리고 그 喜忌를 살펴야 하고

純雜을 관찰해야 하니 정미롭고 미세하니 일괄적으로 論할 수 없는 것이다.

故有傷官用財者 蓋傷不利於官 所以為凶

傷官生財 則以傷官為生官之具 轉凶為吉 故最利

只要身強而財有根 便為貴格 如壬午 己酉 戊午 庚申 史春芳命也

상관격에 財星을 쓰는 傷官用財의 사주가 있다.

무릇 상관은 정관을 극하므로 凶한 것으로 여기는데
상관이 財를 生하게 되면 상관은 도리어 정관을 生하는
道具가 되어 凶이 변하여 吉이 되니 가장 유리하게 된다.

다만 身強하고 財星이 뿌리가 있어야 貴格이 된다.

예를 들면 史春芳의 사주이다.

庚 戊 己 壬
申 午 酉 午

4강 격국론III

至於化傷為財 大為秀氣 如羅狀元命 甲子 乙亥 辛未 戊子 干頭之甲 通根於亥
然又會未成局 化水為木 化之生財 尤為有情 所以傷官生財 冬金不貴 以凍水不能生木
若乃連水化木 不待於生 安得不為殿元乎

상관의 氣를 洩하여 財를 生하는 傷官生財의 局이 되면 크게 빼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羅狀元의 사주는 천간에 투출한 甲木 재성이 亥水에 通根하고
亥未가 會局하니 水가 變하여 木이 되었다.

상관이 變하여 재성이 되었으니 더욱 有情하다.

상관생재가 되었으나 겨울의 金 일주는 貴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얼어붙은 물이 나무를 生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水가 木으로 變했으니 어찌 장원이 되지 못하겠는가?

戊 辛 乙 甲
子 未 亥 子

至於財傷有情 與化傷為財者 其秀氣不相上下
如秦龍圖命 己卯 丁丑 丙寅 庚寅 己與庚同根月令是也

재성과 상관이有情한 것과 상관이財로 化한 것은
빼어난 秀氣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예를 들면 秦龍圖의 사주는
己土와 庚金이 모두 月令에 通根하고 있다.

庚 丙 丁 己
寅 寅 丑 卯

4강 격국론III

有傷官佩印者 印能制傷 所以為貴 反要傷官旺 身稍弱 始為秀氣

如李羅平章命 壬申 丙午 申午 壬申 傷官旺 印根深

身又弱 又是夏木逢潤 其秀百倍 所以一品之貴

然印旺極深 不必多見 偏正疊出 反為不秀 故傷輕身重而印綬多見 貧窮之格也

상관격이 인수를 차고 있는 경우(傷官佩印)가 있다.

인성은 능히 상관을 제압하므로 貴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도리어 상관이 旺하고 일주는 조금 身弱해야 비로소 秀氣가 빼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羅平章의 사주는 상관이 旺하고 인수가 뿌리가 있고 身弱하다.

더욱이 여름의 나무가 물을 만났으니 그 빼어남이 백 배에 이른다.

그러므로 一品의 貴를 누렸다.

그러나 인수가 왕성하고 뿌리가 깊으면 많이 있을 필요는 없다.

정인과 편인이 잡다하게 투출하면 오히려 빼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관이 가볍고 身強한데 인성이 많이 있으면 빈궁하게 된다.

壬 甲 丙 壬
申 午 午 申

4강 격국론III

有傷官兼用財印者 財印相剋 本不並用 只要干頭兩清而不相碍
又必生財者財太旺而帶印 佩印者印太重而帶財 調停中和 遂為貴格
如丁酉 己酉 戊子 壬子 財太重而帶印 而丁與壬隔以戊己
兩不相碍 且金水多而覺寒 得火融和 都統制命也

상관격에 재성과 인성을 兼用하는 경우가 있다.

재성과 인성은 相剋하는 관계이므로 원래는 並用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干頭에서 財와 印이 모두 淸하고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兼용할 수 있다.
그리고 生財를 반드시 해야 하면서도 재성이 太旺한데 인성이 있는 경우(傷官佩印)와
인성이 너무 많은데 재성이 있는 경우에는 中和를 이루어 貴格이 된다.
예를 들면 都統制의 사주이다. 재성이 너무 많은데 인성을 가지고 있고
丁과 壬 사이에 戊己가 있어서 財와 印이 서로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金水가 많아서 寒冷한데 火를 얻어 融和하게 되었다.

壬 戊 己 丁
子 子 酉 酉

又如壬戌 己酉 戊午 丁巳 印太重而帶財 亦隔戊己
而丁與壬不相碍 一丞相命也 反是則財印不並用而不秀矣

또 예를 들면 어느丞相의 사주인데 인성이 너무 많은데 財가 있다.
財와 印 사이에 戊己가 있으니 丁과 壬이 서로 장애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와 반대가 되면 재성과 인성을 兼用할 수도 없고
秀氣가 빼어나지도 못하게 된다.

丁 戊 己 壬
巳 午 酉 戌

有傷官用煞印者 傷多身弱 賴煞生印以幫身而制傷

如己未 丙子 庚子 丙子 蔡貴妃命也 煞因傷而有制 兩得其宜
只要無財 便為貴格 如壬寅 丁未 丙寅 壬辰 夏閣老命 是也

상관격에 殺印을 쓰는 경우가 있다.

상관이 많고 身弱하면 칠살이 生한 인수의 幫身에 의지한다.

예를 들면 蔡貴妃의 사주이다.

칠살은 상관에게 制伏되었으니 칠살이 무섭지 않고 殺印相生이 되었다.

재성이 없으니 틀림없는 貴格이다. 또 예를 들면 夏閣老의 사주이다.

丙 庚 丙 己
子 子 子 未

壬 丙 丁 壬
辰 寅 未 寅

4강 격국론III

有傷官用官者 他格不用 金水獨宜 然要財印為輔 不可傷官並透
如戊申 甲子 庚午 丁丑 藏癸露丁 戊甲為輔 官又得祿 所以為丞相之格
若孤官無輔 或官傷並透 則發福不大矣

상관격에 正官을 쓰는 傷官用官이 있다.

다른 상관격은 정관을 쓰지 못하지만 오로지 金水상관격에서만 관살이 필요하다.

그러나 金水상관격에서도 재성과 인성으로 정관을 보필해야 하며

정관과 상관이 모두 천간에 투출하면 안된다.

예를 들면 다음 경오일주의 사주인데 癸水 상관은 지지에 있고 丁火 정관은 천간에 있다.

戊土인성과 甲木재성이 정관을 보필하면서 정관이 지지에서 祿을 얻었다.

그러므로 丞相이 될 수 있었다.

만약 孤官無輔(외로운 정관)가 되었거나 혹은 정관과 상관이 모두 천간에 투출하였다면

發福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丁 庚 甲 戊
丑 午 子 申

若冬金用官 而又化傷為財 則尤為極秀極貴
如丙申 己亥 辛未 己亥 鄭丞相命 是也

만약 겨울의 金 일주가 正官을 쓰는데 상관이 變하여
재성이 되었다면 극히 秀氣가 빼어나고 극히 貴하게 된다.
예를 들면 鄭丞相의 사주가 이것이다.

己 辛 己 丙
亥 未 亥 申

4강 격국론III

然亦有非金水而見官 何也 化傷為財 傷非其傷

作財旺生官而不作傷官見官 如甲子 壬申 己亥 辛未 章丞相命也

至於傷官而官煞並透 只要干頭取清 金水得之亦清 不然則空結構而已

그런데 金水상관격이 아니면서도 정관을 보아도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떤 경우인가?

상관이 변하여 재성이 되면 財旺生官이 된 것이지

傷官見官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章丞相의 사주이다.

상관격에 官殺이 모두 투출한 경우에 천간에서 淸하게 되기만 하면

金水상관격 역시 貴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하다.

辛 己 壬 甲
未 亥 申 子

〈子平眞詮〉 論傷官取運

傷官取運 即以傷官所成之局 分而配之

傷官用財 財旺身輕 則利印比 身強財淺 則喜財運 傷官亦宜

傷官格의 運을 보는 법은 상관격에서 이루어진 局을 분별한 후에 論한다.

傷官用財의 局은 財旺身輕(財多身弱)하다면 人성운과 비겁 운이 좋고

身強財淺(身強財弱)하다면 財성운을 반기고 상관운 역시 마땅하다.

傷官佩印 運行官煞為宜 印運亦吉 傷食不碍 財地則凶

傷官而兼用財印 其財多而帶印者 運喜助印 印多而帶財者 運喜助財

傷官而用煞印 印運最利 傷食亦亨 雜官非吉 逢財即危

상관격이 인성을 차고 있는(傷官佩印) 경우는 官殺運이 좋고 인성운도 역시吉하다. 식상운은 장애가 되지 않지만 재성운은凶하다. 상관격에 재성과 인성을 兼用하는 경우가 있다.

재성이 많은데 인성이 있으면 인성을 돕는 運이 좋고

인성이 많은데 재성을 가지고 있으면 재성을 돕는 運이 좋다.

상관격에 殺印을 쓰는 경우는 인성운이 가장 유리하고

식상운 역시 형통하고 정관이 혼잡하면 길하지 못하며 재성운은 위험하다.

傷官帶煞 喜印忌財 然傷重煞輕 運喜印而財亦吉

惟七根重 則運喜傷食 印綬身旺亦吉 而逢財為凶矣

傷官用官 運喜財印 不利食傷 若局中官露而財印兩旺 則比劫傷官 未始非吉矣

상관격에 칠살이 있는 傷官帶殺의 局은 인수가 좋고 財를 꺼린다.

그러나 상관이 重하고 칠살이 輕하다면 인성운과 재운이 모두 吉하다.

그러나 오직 七殺의 뿌리가 重하면 食상운을 좋아하고 인수운과 신왕운 역시 吉하다.

그러나 財運에는 凶하다.

傷官用官의 사주는 재성운과 인성운을 받거나 食상운은 不吉하다.

만약 原局에 정관이 노출되고 재성과 인성이 모두 旺하다면 비겁운과 상관운은 좋지 않다.

子平粹言
李虛中命書

명리 고전 하이라이트 강독 II

5강 격국론 IV

〈子平眞詮〉 論陽刃

陽刃者 劫我正財之神 乃正財之七煞也 祿前一位 惟五陽有之 故為陽刃

不曰劫而曰刃 劫之甚也 刃宜伏制 官煞皆宜 財印相隨 尤為貴顯

夫正官而財印相隨美矣 七煞得之 夫乃甚乎 豈知他格以煞能傷身 故喜制伏 忌財印

陽刃用之 則賴以制刃 不怕傷身 故反喜財印 忌制伏也

陽刃(羊刃)이란 나의 正財를 겁탈하는 것이다. 곧 정재에게는 七殺이다.

양인은 일간의 祿에서 앞으로 한 번 전진한 곳에 있다. 五陽干만 양인이 있기 때문에 陽刃이라 한다.

劫財라고 하지 않고 刃이라고 하는 이유는 財를 겁탈하는 작용이 일반 겁재보다 극렬하기 때문이다.

陽刃은 마땅히 剋制해야 하므로 정관이든 칠살이든 모두 마땅하다. 재성과 인수로 관살을 보좌하면 더욱 貴하게 된다.

무릇 正官이 재성과 인성의 보좌를 받으면 좋은 것은 당연한데 七殺까지 財와 印綬의 보필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양인격이 아닌 다른 格局에서는 칠살이 일주를 剋하기 때문에 制伏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재성과 인성을 꺼리는데

어째서 유독 양인격만은 칠살을 財와 印으로 보좌하는가?

양인격에서 칠살을 쓰는 것은 오로지 칠살에 의지해서 양인을 제복해야 하기 때문에 칠살이 나를

剋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히려 재성과 인성을 반기고 칠살을 制伏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서락오 평주) 악비(岳武穆)의 사주다.

양인이 旺하고 칠살은 경미하다.

재성과 인성이 보좌하는데 인수운이吉했다.

辛亥 대운에는 亥卯未가 三合하여 木局이 되니

양인의 氣勢가 孟徹 巳를 沖한다.

辛酉年에 양인 卯를 沖하니

관살과 양인의 싸움이 극렬하게 되어 參변을 당했다.

이것이 양인격의 좋은 예이다.

己 甲 乙 癸
巳 子 卯 未

己 庚 辛 壬 癸 甲
酉 戌 亥 子 丑 寅

陽刃用官 透刃不慮 陽刃露煞 透刃無成

蓋官能制刃 透而不為害 刃能合煞 則有何功 如丙生午月

透壬制刃 而又露丁 丁與壬合 則七煞有貪合忘剋之意 如何制刃 故無功也

양인격에 正官을 쓰는 陽刃用官의 경우에는 양인(劫財)이 천간에 투출한 것이 두렵지 않다.

그러나 양인격에 칠살을 쓰는 陽刃用殺의 경우에는

양인이 천간에 투출하면 格局이 성립되지 못한다.

正官은 능히 양인을 제압하며 양인이 천간에 투출한 것이 있어도 害가 되지 않지만

양인이 천간에 투출하면 그것이 칠살을 合去하니 어찌 功을 이룰 있겠는가?

예를 들면 丙火 일주가 午月에 태어나고 천간에 壬水의 칠살이 있어서 양인을 제복하고 있는데 양인(劫財) 丁火가 천간에 투출했다면 丁壬이 合하여 壬水 七煞이 貪合忘剋이 된다.

그러면 壬水 칠살이 양인을 剋制하지 못하므로 功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庚 甲 乙 甲
午 寅 卯 申

_내관의 사주

5강 격국론IV

然同是官煞制刃 而格亦有高低 如官煞露而根深 其貴也大

官煞藏而不露 或露而根淺 其貴也小

若己酉 丙子 壬寅 丙午 官透有力 旺財生之 丞相命也

又辛酉 甲午 丙申 壬辰 透煞根淺 財印助之 亦丞相命也

그러나 같은 官殺制刃(관살로 양인을 剋制함)의 格局이라고 해도 높낮이가 있다.

예를 들면 官殺이 천간에 노출되고 그 뿌리가 깊다면 貴함이 크다.

官殺이 地支에 있고 천간에 노출되지 않거나 천간에 노출되었다고 해도

그 뿌리가 약하면 그 貴함이 적다.

예를 들면 임인일의 사주는 正官이 천간에 투출하고 旺盛한 財가 正官을 생하니

丞相이 되었다. 역시 승상이 된 병신일의 사주는 칠살이 천간에 투출했으나

그 뿌리가 가벼운데 財가 칠살을 생하고 있다. 역시 丞相의 사주이다.

丙 壬 丙 己
午 寅 子 酉

壬 丙 甲 辛
辰 申 午 丑

5강 격국론IV

然亦有官煞制刃帶傷食而貴者 何也 或是印護 或是煞太重而裁損之 官煞輕而取清之
 如穆同知命 甲午 癸酉 庚寅 戊寅 癸水傷寅午之官 而戊以合之 所謂護也
 如賈平章命 甲寅 庚午 戊申 甲寅 煞兩透而根太重 食以制之 所謂裁損也
 如丙戌 丁酉 庚申 壬午 官煞競出 而壬合丁官 煞純而不雜. 況陽刃之格 利於留煞 所謂取清也

官殺이 양인을 剋하는 경우에 식상이 있는데도 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인성이 있어서 관살을 보호하거나 칠살이 太重한데 식상이 이를 減어주거나
 官殺이 식상으로 인해 去官留殺이 되거나 去殺留官이 되어 사주가 淸하게 된 까닭이다.
 예를 들면 穆同知의 사주는 癸水가 寅午의 正官을 손상하기 전에 戊土가 癸水를 合去했다.
 식상을 인수가 제거하여 정관을 보호한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賈平章의 사주는 칠살이 두 개나 천간에 투출하고 그 뿌리가 깊은데
 식신이 칠살을 제압하고 있다.
 또 다른 경신일의 사주는 관살이 모두 천간에 투출하고 식신 壬水가 정관 丁火를 合去하니
 칠살이 홀로 남아 혼잡하지 않고 淸水하게 되었다.
 양인격에서는 특히 칠살을 남기는 것이 유리한데 그것은 사주가 맑아지기 때문이다.

戊 庚 癸 甲
 寅 寅 酉 午

甲 戊 庚 甲
 寅 申 午 寅

壬 庚 丁 丙
 午 申 酉 戌

更若陽刃用財 格所不喜 然財根深而用傷食
 以轉刃生財 雖不比建祿月劫 可以取貴 亦可就富
 不然 則刃與財相搏 不成局矣

양인격에 財를 쓰는 格局은 좋지 않다.

그러나 재성의 뿌리가 깊어서 食상을 쓴다면 양인이 食상을 生하고
 食상이 다시 재성을 生하게 된다.

비록 建祿格과 月劫格보다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富貴할 수 있는 것이다.

食상도 없다면 양인과 재성이 서로 싸우니 成局하지 못한다.

辛 壬 丙 甲
 亥 寅 子 申

戊 戊 戊 戊
 午 戌 午 子

戊 戊 戊 戊
 午 子 午 申

〈子平眞詮〉 論陽刃取運

陽刃用官 則運喜助官 然命中官星根深 則印綬比劫之方
反為美運 但不喜傷食合官耳

陽刃(羊刃)格에 正官이 있는 陽刃用官의 경우에는 정관을 돕는 運이 좋다.

그러나 사주 원국에서 정관이 뿌리가 깊다면 印綬運과 比劫運이 도리어 좋은 운이다.

그러나 식상운은 정관을 습하므로 좋지 않다.

앞서 거론했던 賈平章의 사주이다.

午는 丁과 己의 祿이니 양인이다. 그런데 寅午火局이 되니 양인이 變하여 인성이 되었다.

甲寅時이니 칠살이 너무 강하다. 기쁜 것은 申이 寅을 沖하여 太過한 칠살을 剋하면서

申중의 壬水가 사주를 운택하게 해주는 점이다.

그리하여 火는 뜨겁지 않고 土는 메마르지 않게 되었다.

비록 월령이 양인이지만 殺刃格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다. 壬申 癸酉 대운이 가장吉하다.

甲 戊 庚 甲
寅 申 午 寅

丁 丙 乙 甲 癸 壬 辛
丑 子 亥 戌 酉 申 未

陽刃而官煞並出 不論去官去煞

運喜制伏 身旺亦利 財地官鄉反為不吉也

양인격에 관살이 모두 투출하면 去官이든 去殺이든 制伏하는 運이 좋다.

身旺運 역시 유리하고 재성운과 관성운은 不吉하다.

(서락오 평주) 丁壬습이 되니 습官留殺이다. 습官하면 칠살이 淸純하게 된다.

더욱 아름다운 것은 칠살이 강한데 運이 칠살을 制伏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身旺運 역시 吉하다. 그러나 戊己 인수운은 不吉하다.

왜냐하면 壬水를 剋하여 사주를 맑게 하는 것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만약 壬水가 투출하지 않았다면 관살이 있는 사주에 인수운이 吉했을 것이다.

이것이 壬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라고 하겠다.

壬 庚 丁 丙
午 申 酉 戌

甲 癸 壬 辛 庚 己 戊
辰 卯 寅 丑 子 亥 戌

〈子平眞詮〉 論建祿月劫

建祿者. 月建逢祿堂也 祿即是劫

或以祿堂透出 即可依以用者 非也

故建祿與月劫 可同一格 不必另分 皆以透干會支 別取財官煞食為用

建祿이란 월령(月建)이 일주의 祿堂인 것을 말한다.

祿은 곧 比劫이 되지만 천간에 투출한 것은 祿이 아니다.

그러므로 建祿과 月劫은 동일한 格으로 볼 수 있으며 굳이 분할 필요가 없다.

비견이든 겁재이든 천간에 투출하고 地支에서 會局한다면 財官殺食傷 등을 取하여 쓴다.

(서락오 평주) 월령에서 祿을 만나면 建祿이고 日支에서 祿을 만나면 專祿이고

時支에서 祿을 만나면 歸祿이고 年支에서 祿을 만나면 歲祿이다.

月劫이란 월령에서 겁재를 만난 것을 말한다. 월지의 겁재를 陽일주는 陽刃이라 하고 陰일주는 劫財라고 한다.

建祿적이든 월겁적이든 이를 취하여 쓰지 않고 별개의 財官殺食傷을 보는 법과 같아진다.

그러므로 월겁적이라고 해서 용신 정하는 법을 별도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

祿格用官 干頭透出為奇 又要財印相隨 不可孤官無輔
有用官而印護者 如庚戌 戊子 癸酉 癸亥 金丞相命是也
有用官而財助者 如丁酉 丙午 丁巳 壬寅 李知府命是也

건록격에 정관을 쓰는 祿格用官의 경우는
정관이 천간에 투출하면 기특하게 된다.
財星과 印星이 서로 보좌(相隨)해야 좋고
보필이 없는 외로운(孤官無輔) 정관이 됨을 꺼린다.
정관을 쓰는데 인수로 정관을 보호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金丞相의 사주이다. 정관을 쓰는데 財로써 돕는 경우도 있다.

癸 癸 戊 庚
亥 酉 子 戌

有官而兼帶財印者. 所謂身強值三奇 尤為貴氣 三奇者 財官印也

只要以官隔之 使財印兩不相傷

其格便大 如庚午 戊子 癸卯 丁巳 王少師命是也

正官이 있으면서 財와 印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이른바 身強值三奇라고 하여 더욱 貴氣할 징조가 된다.

三奇란 財官印을 말한다.

三奇가 있는 사주는 정관이 財와 印綬 사이에 위치하여
財와 인수가 서로 싸우지 않아야 그 格局이 더욱 크게 된다.

예를 들면 王少師의 사주이다.

丁 癸 戊 庚
巳 卯 子 午

祿劫用財 須帶食傷 蓋月令為劫而以財作用 二者相剋
必以傷食化之 始可轉劫生財 如甲子 丙子 癸丑 壬辰 張都統命 是也

祿劫用財(건록격과 월겁격에 財를 씬)의 경우는
반드시 食傷이 있어야 한다.

월령이 건록격이거나 겁재이면서 財를 쓰는 경우에는
財와 비겁의 싸움이 있게 되므로 食傷으로 통관해야
비로소 비겁이 식상을 生하고 식상이 財를 生하여 좋게 된다.
예를 들면 張都統의 사주이다.

壬 癸 丙 甲
辰 丑 子 子

至於化劫為財 與化劫為生 尤為秀氣 如己未 巳巳 丁未 辛丑 丑與巳會

即以劫財之火為金局之財 安得不為大貴 所謂化劫為財也

如高尚書命 庚子 甲申 庚子 甲申 即以劫財之金 化為生財之水 所謂化劫為生也

化劫為財(겁재가 財로 변함)가 되거나

化劫為生(겁재가 食傷이 됨)이 되면 더욱 빼어난 기운이 된다.

예를 들면 巳丑이 會局하여 金局이 되니 겁재 火가 변하여 金의 財가 되었다.

그러니 어찌 大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경우를 가리켜 化劫為財라고 한다.

또 예를 들면 高尚書의 사주는 겁재 金이 변하여 財를 生하는 食傷 水가 되었다.

이런 것을 가리켜 化劫為生이라고 한다.

辛 丁 己 己
丑 未 巳 未

甲 庚 甲 庚
申 子 申 子

至用煞而又財 本為不美 然能去煞存財 又成貴格
戊辰 癸亥 壬午 丙午 合煞存財 袁內閣命是也

祿劫格에서 칠살이 있는데 다시 재성이 있으면
원래는 불미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칠살을 제거하고 재성을 남긴다면 이 또한 貴格을 이룬다.

예를 들면 이 사주는 合殺하여 재성을 남겼다.

袁內閣의 사주이다.

丙 壬 癸 戊
午 午 亥 辰

其祿劫之格 無財官而用傷食 泄其太過 亦為秀氣
 唯春木秋金 用之則貴 蓋木逢火則明 金生水則靈
 如張狀元命 甲子 丙寅 甲子 丙寅 木火通明也
 又癸卯 庚申 庚子 庚辰 金水相涵也

建祿格과 月劫格에서는 財官이 없으면 食傷으로 洩氣해야 하는데
 설기가 太過하면 비록 秀氣라고는 하지만
 오로지 봄의 목(春木) 일주와 가을의 금(秋金) 일주만 貴하게 된다.
 무릇 木은 火를 만나면 通明하게 되고 金은 水를 生하면서 신령하게 된다.
 예를 들면 張狀元의 사주는 木火通明이 되었다.
 또 다음 사주는 金水相涵이 되었다.

丙 甲 丙 甲
 寅 子 寅 子

庚 庚 庚 癸
 辰 子 申 卯

更有祿劫而官煞競出 必取清 方為貴格

如一平章命 辛丑 庚寅 甲辰 乙亥 合煞留官也

如辛亥 庚寫 甲申 丙寅 制煞留官也

건록격과 월검격에 관살이 모두 투출하면
반드시 去留하여 사주를 맑게 해야 비로소 貴格이 된다.

예를 들면 平章의 사주는 殺留官이 되었다.

그 다음 사주는 制殺留官이 되었다.

乙 甲 庚 辛
亥 辰 寅 丑

丙 甲 庚 辛
寅 申 寅 亥

用財而不透傷食 便難於發端 然干頭透一位而不雜
地支根多 亦可取富 但不貴耳

祿劫格에서 財를 쓰는데 食상이 투출하지 않으면 발달하기 어렵다.

그러나 천간에 한 개가 투출하고 잡다하지 않으면서 地支에 뿌리가 많다면

역시 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貴하지는 못한다.

(서락오 평주) 건록격과 월겁격이 재성을 쓰는 것은 양인격과 비슷하다.

반드시 食상이 관건이 된다. 그러나 格局이 청수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運이 도와야 한다.

그렇게 되면 富貴한다. 예를 들면 계해일주의 이 사주는 月劫格에 財가 용신이다.

亥중의 물 먹은 甲木으로는 水生木 木生火를 할 수 없다.

기쁘게도 남방 대운 丁未 丙午 乙巳運이 와서 富貴할 수 있었다.

이것은 淸나라 때 科甲에 급제한 어느 觀察使의 사주이다.

癸 癸 辛 丁
亥 亥 亥 丑

用官煞重而無制伏 運行制伏 亦可發財
但不可官煞太重 致令身危也

官殺이 重疊하고 制伏이 없어도 관살을 制伏하는 運이 오면 역시 發財할 수 있다.

그러나 관살이 너무 과중하면 身上에 위태로움이 있다.

(서락오 평주) 관살이 重하고 食상의 制伏이 없다면 반드시 인수라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身輕殺重하니 다시 食상의 運으로 간다고 해도 剋洩交加가 되어 목숨이 위험하다.

예를 들어 이 사주는 地支에 寅卯辰 모두 있으니 木의 方局을 이루어 관살이 旺하다.

기쁜 것은 월간과 시간에 두 개의 丙火 인수가 있다는 점이다. 어려서는 비겁운이니 고생이

극심했고 중년운 庚申 辛酉 대운에 食상이 관살을 制伏하니 수 십만 냥의 돈을 벌었다.

그러나 만년에 대운이 재성으로 흐르니 인성을 破하고 관살을 도와 一敗塗地했다.

내 고향의 어느 富翁의 사주이다.

丙 己 丙 戊
寅 卯 辰 寅

〈子平眞詮〉 論建祿月劫格 取運法

祿劫取運 即以祿劫所成之局 分而配之

祿劫用官 印護者喜財 怕官星之逢合 畏七煞之相乘

傷食不能為害 劫比未即為凶

建祿格과 月劫格의 運을 보는 법은

건록과 월겁이 이루어지는 局을 보고 運을 잘 배합해야 한다.

祿劫用官(녹겁격에 정관이 있는 사주)의 경우에는 인수의 보호가 있다면

재성운이 좋고 정관을 습하는 運을 꺼리며

칠살과 서로 혼잡(相乘)하게 되는 運을 꺼리며

食傷運은 해롭지 않고 比劫運 역시 凶이 되지 않는다.

財生喜印 宜官星之植根 畏傷食之相侮 逢財愈見其功 雜煞豈能無碍

祿劫格에 財의 生助를 받고 있다면

인수가 있어야 좋으며 정관이 뿌리를 내려야 하고 식상이 정관을 능멸함을 두려워하고 재성운을 만나면 더욱 그 功이 나타나지만 칠살과 섞이면 어찌 障碍가 없겠는가?

祿劫用財而帶傷食 財食重則喜印綬 而不忌比肩
財食輕則宜助財 而不喜印比 逢煞無傷 遇官非福

建祿格과 月劫格에서 財를 쓰는데 食傷이 있는 경우에는
재성과 식상이 重하다면 印綬運을 반기고 比劫運도 꺼리지 않으며
재성과 식상이 輕微하다면 마땅히 재성을 도와야 하고 인수와 비겁운은 반기지 않는다.
칠살을 만나도 해로움은 없으나 정관을 만나면 福이 되지 않는다.

〈子平眞詮〉 論雜格

有取五行一方秀氣者 取甲乙全亥卯未寅卯辰 又生春月之類
 本是一派劫財 以五行各得其全體 所以成格 喜印露而體純
 如癸亥 乙卯 乙未 壬午 吳相公命是也
 運亦喜印綬比劫之鄉 財食亦吉 官煞則忌矣

五行 가운데 하나의 秀氣를 취하는 것이 있다.

甲乙이 있고 亥卯未나 寅卯辰이 모두 있으면서 봄에 출생했다면
 원래 비겁이 꼭 찾지만 한 가지 오행이 전체를 이루고 있으니 格이 이루어진다.

이런 格은 인수가 드러나 있는 것이 좋고 사주 전체가 순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吳相公의 사주이다.

大運은 인수운과 비겁운이 좋고 재운과 식상운도吉하지만 官살운은 꺼린다.

壬 乙 乙 癸
 午 未 卯 亥

5강 격국론IV

有從化取格者 要化出之物 得時乘令 四支局全

如丁壬化木 地支全亥卯未 寅卯辰 而又生於春月 方為大貴

否則亥未之月亦是木地 次等之貴 如甲戌 丁卯 壬寅 甲辰 一品貴格命也

運喜所化之物 與所化之印綬 財傷亦可 不利官煞

化를 쫓아서 格을 정하는 것도 있다.

그럴 때는 化出한 것이 반드시 得時 並令해야 하고 네 지지가 方局으로 온전해야 한다.

예를 들면 丁壬化木이 되면서 地支에서 亥卯未나 寅卯辰이 온전하게 갖추어지고

봄에 출생하면 大貴格이 된다.

그렇지 않고 亥未의 月에 출생했다면 次等の 貴格이 된다.

예를 들면 一品의 貴를 누린 사주이다.

運은 化한 五行이거나 化한 五行에게 인수가 되는 運을 반기고 化한 五行에게

재성이나 식상이 되는 운도 관찮으나 化한 五行에게 관살이 되는 운은 좋지 않다.

甲 壬 丁 甲
辰 寅 卯 戌

有井欄成格者 庚金生三七月 方用此格

以申子辰沖寅午戌 財官印綬 合而沖之 若透丙丁

有巳午 以現有財官 而無待於沖 乃非井欄之格矣

如戊子 庚申 庚申 庚申 郭統制命也 運喜財 不利填實 餘亦吉也

井欄叉格이라는 것이 있다.

庚金 일주가 3月이나 7月에 출생하면 정란차격이다.

지지의 申子辰이 寅午戌을 沖하여 오니 재관이 생기게 된다.

만약 丙丁이 투출하거나 巳午가 있다면 이미 재관이 있기 때문에 沖하여 재관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井欄叉格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郭統制의 사주이다.

재성운을 좋아하고 填實되는 운은 불리하나 여타의 運은 吉하다.

庚 庚 庚 戊
辰 申 申 子

5강 격국론IV

若夫拱祿 拱貴 趨乾 歸祿 夾戌 鼠貴 騎龍 日貴 日德 富祿 魁罡 食神時墓 兩干不雜 干支一氣 五行具足之類
一切無理之格 既置勿取. 即古人格內 亦有成式 總之意為牽就 硬填入格 百無一是 徒誤後學而已
乃若天地雙飛 雖富貴亦有自有格 不全賴此
而亦能增重其格 即用神不甚有用 偶有依以為用 亦成美格. 然而有用神不吉 即以為凶 不可執也

공록격 공귀격 추천격 귀록격 협술격 서귀격 기룡격 일귀격 일덕격 복록격
괴강격 신신시묘격 양천부잡격 간지일기격 오행구족격 등이 있는데
모두 이치가 없으니 논할 필요가 없다.
고인들이 독립된 格局을 만들었으나
하나도 이치에 맞지 않는데도 후학들이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5강 격국론IV

其於傷官傷盡 謂是傷盡 不宜見官 必盡力以傷之 使之無地容身 更行傷運 便能富貴 不知官有何罪 而惡之如此
況見官而傷 則以官非美物 而傷以制之 又何傷官之謂凶神 而見官之為禍百端乎
予用是術以歷試 但有貧賤 並無富貴 未輕信也 近亦見有大貴者 不知何故
然要之極賤者多 不得不觀其人物以衡之

傷官傷盡이라는 것이 있다.

정관을 보면 마땅치 않으니 상관으로 극력 정관을 제거해야 하며 꿈쩍도 못하도록 묶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運이 상관운으로 가면 곧 부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관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와 같이 관성을 미워하는가? 심지어 상관운이 와야 좋다는 말까지 한다.

정관이 상관에게 상해를 입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관이 좋지 않을 때는 이를 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관을 凶神으로 보고 상관견관이면 재앙이 백 가지로 나타난다는 말도 있는 것이다.

내가 이 방법으로 두루 시험해 보았는데 상관상진이 된 사주에서 빈천한 사람은 많았고 부귀한 사람은 적었다.

그러니 상관상진의 이론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근래에 상관견관이 되었으나 大貴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극히 비천한 사람들도 많으니 부득불 그 인물됨을 보고서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